

2017. 06. 1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 밑줄 친 말이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바닷물이 퍼레서 무서운 느낌이 든다.
- ② 또아리 틈 뱀을 쳐다보지 마라.
- ③ 머릿말에 쓸 내용을 생각해 뒤라.
- ④ 문을 잘 잠궜어 한다.

01 ① 한글맞춤법

① ‘퍼렇다’의 어간 ‘퍼렇-’ 뒤에 어미 ‘-어서’가 붙어 ‘퍼레서’가 된다. 참고로, ‘파랗다’의 경우는 ‘파랗-’ 뒤에 ‘-아서’가 결합하면 ‘파래서’가 된다.

② 또아리 → 따리

표준어 규정 제14항에 따르면,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에 따라, ‘따리, 무, 생쥐, 술개, 귀찮다, 뱀, 온갖’ 등이 옳은 표현이다. 따라서 ‘따리’가 옳바른 것이다. ‘따리’는 짐을 머리에 일 때 머리에 받치는 고리 모양의 물건을 일컫는다.

③ 머릿말 → 머리말

‘사이시옷’은, 순우리말 또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가운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받치어 적는다. ‘머리말’은 순우리말 ‘머리’와 순우리말 ‘말’로 된 합성어인데, [머리말]과 같이 표기 그대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는다.

④ 잠궜어 → 잠가야

‘여닫는 물건을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걸거나 하다’, ‘물, 가스 따위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차단하다’, ‘옷을 입고 단추를 끼우다’,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 등의 뜻일 때, ‘잠그다’가 옳다. ‘잠궜어’는 바르지 않다.

2. 밑줄 친 말의 의미는?

몇 달 만에야 말길이 되어 겨우 만나 보았다.

- ① 마음에 담겨 재미를 붙이다.
- ②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토론이 되다.
- ③ 자신을 소개하는 길이 트이다
- ④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 말하다.

02 ③ 관용적 표현의 의미

‘말길(이) 되다’는 ‘남에게 소개하는 의논의 길이 트이다.’의 뜻을 지닌 관용적 표현이다.

- ① 맛(을) 붙이다, ② 말이 있다, ④ 말꼬리를 물다

3. 괄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쌈: 바늘 ()개를 묶어 세는 단위.
- 제(劑):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 한 제는 탕약(湯藥) ()첨.
- 거리: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 개를 이른다.

- ① 80 ② 82 ③ 90 ④ 94

03 ④ 우리말 단위어

바늘 한 쌈(24개)+한 제(20첨)+한 거리(50개)=94개이다.

• 쌈:

- ㉠ 바늘을 묶어 세는 단위. 한 쌈은 바늘 스물네 개를 이른다.
- ㉡ 옷감, 피혁 따위를 알맞은 분량으로 싸 놓은 덩이를 세는 단위.
- ㉢ 금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한 쌈은 금 백 냥중이다.

• 제(劑): 한 제는 탕약(湯藥) 스무 첨. 또는 그만한 분량으로 지은 환약(丸藥) 따위를 이른다.

• 거리: 오이나 가지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오십 개를 이른다.

4. 밑줄 친 시어에서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는?

㉠春雨暗西池 봄비 내리니 서쪽 못은 어둑한데
輕寒襲㉡羅幕 찬바람은 비단 장막으로 스며드네.
愁倚小㉢屏風 시름에 겨워 작은 병풍에 기대니
墻頭㉣杏花落 담장 위에 살구꽃 떨어지네.

- ① ㉠
- ② ㉡
- ③ ㉢
- ④ ㉣

04 ④ 고전시가 - 시어의 의미

4구는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심사를 ‘행화(杏花: 살구꽃)’이라는 소재에 의탁하여 나타낸 구절이다. 살구꽃은 봄날 한 때 피었다가 금방 지는 꽃으로서, 인생의 짧은 젊음 또는 여인의 짧은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즉, 화자는 봄비에 하나 둘 떨어지고 있는 살구꽃을 바라보며, 자신의 젊음이 속절없이 허망하게 지나가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살구꽃’은 이렇게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이며,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사를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춘우(春雨) : 봄비. 연못에 소리 없이 내리고 있는 봄비는 화자의 쓸쓸함을 자아내는 배경이다.
- ② 나막(羅幕) : 비단 장막.
- ③ 병풍(屏風)
- ④ 행화(杏花) : 살구꽃. 여기서는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는 소재

※출전: 허난설헌, ‘봄비[春雨]’

1. 해제: 오연절구로 이루어진 시이다. 만물이 꽃피는 봄날인데, 문 밖 서쪽 연못에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보는 규방 여인의 시름을 강렬하게 그려내고 있다. 살구꽃은 4월에 피니까, 봄은 이미 절정으로 치달고 있다. 생동하는 꽃과 추적대며 내리는 비가 서로 대비되면서 화자의 우울한 마음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 준다. 슬픔의 절창이다.

2. 핵심 정리

- 1) 갈래 : 한시. 오연절구
- 2) 성격 : 애상적, 독백적, 서정적
- 3) 어조 : 쓸쓸한 독백의 어조
- 4) 표현 :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사물에 의탁하여 표현함.
- 5) 제재 : 이른 봄의 쓸쓸한 정경
- 6) 주제 :규중 여인의 외로운 심사
- 7) 구성 (선경 후정의 시상전개)
- 1구 - 연못에 봄비가 내리는 쓸쓸한 정경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7년 6월 17일 지방직 9급

2017. 06. 1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2구 - 이른 봄의 추위가 외로움을 더함
- 3구 - 시름에 잠긴 화자의 모습
- 4구 - 허망하게 지나가는 젊은 날

3. 어휘풀이

춘우암서지(春雨暗西池)
경한습라막(輕寒襲羅幕)
수의소병풍(愁倚小屏風)
장두행화락(牆頭杏花落)

- 춘우(春雨) : 봄비.
- 암(暗) : '어둡다'는 뜻. 여기서는 연못에 봄비가 알 듯 말 듯 소리 없이 내리는 모양을 나타낸다. 몰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랑비처럼 가늘고 소리 없이 내리는 비를 상징한다.
- 경한(輕寒) : 가벼운 추위. 싸늘함. 여기서는 비 내리는 봄날의 쌀쌀한 기운을 뜻한다.
- 습(襲) : '침범하다'라는 뜻
- 나막(羅幕) : 비단 장막.
- 의(倚) : 기대다.
- 장두(牆頭) : 담장 머리. 담장 위.
- 행화(杏花) : 살구꽃. 여기서는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는 소재, 4구는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심사를 '살구꽃'이라는 소재에 의탁하여 나타낸 구절이다. 살구꽃은 봄날 한 때 피었다가 금방 지는 꽃으로서, 인생의 짧은 젊음 또는 여인의 짧은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즉, 화자는 봄비에 하나 둘 떨어지고 있는 살구꽃을 바라보며, 자신의 젊음이 속절없이 허망하게 지나가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살구꽃'은 이렇게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이며,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사를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다.

5.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너머 성권룡(成勸農) 집의 술늑닷 말 어제 듯고
누은 쇼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줄탁고
아히야 네 권룡 거시나 덩좌수(鄭座首) 왓다 허여라

- ① '아히'는 화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존재이면서 대화체로 이끄는 영탄적 어구이다.
- ② '언치 노하'는 엄격한 격식을 갖추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③ '박차'라는 표현에서 역동성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 ④ 화자는 소박한 풍류를 즐기며 살고 있다.

05 ② 고시조 작품의 이해

- ② '언치'는 말이나 소의 안장이나 길마에 까는 담요나 방석이다. 말에 안장을 엮는 것이 아니라 소 등에 깔개를 엮고 탄다는 내용은 화자의 소박하고 향토적인 생활과 정서를 느끼게 한다.
- ③ 재 너머 성권룡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듣고 흥겨움에 누워 있는 소를 발로 차서 달려가는 모습에서 역동성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 ④ 이 작품은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노래한 시조로, 화자는 전원 생활 속에서 한가롭게 풍류를 즐기며 살고 있다.

※출전: 정철의 시조

1. 핵심 정리
- 1) 성격 : 풍류한정가, 해학적
- 2) 제재 : 술

- 3) 주제 : 향촌 생활의 흥취, 전원 한정

- 4) 특징 : 해학적 표현, 시상의 과감한 생략, 호방향 성격

2. 시어 및 시구 풀이

- 성권룡(成勸農) : 성훈(成渾)을 가리킴. '권농(勸農)'은 지방의 방(坊)이나 면(面)에 달려 있으면서 농사일을 권장하던 사람
- 언치 : 안장 밑에 까는 털 헝겊
- 지줄탁고 : 눌러 타고
- 아히야 : 아이야
- 덩좌수(鄭座首) : 송강 자신을 가리킴. '座首(좌수)'는 향소(鄉所)의 우두머리

6. 밑줄 친 말을 한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 지루한 ㉠장광설로 인해 관중들은 하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 정보화 사회일수록 ㉡유언비어가 떠돌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 잘못을 저질렀다면 궁색한 ㉢변명보다 정직한 시인이 현명한 대응이다.

- | | ㉠ | ㉡ | ㉢ |
|---|-----|------|----|
| ① | 長廣舌 | 流言蜚語 | 辨明 |
| ② | 長廣舌 | 流言非語 | 辯明 |
| ③ | 長廣說 | 流言蜚語 | 辯明 |
| ④ | 長廣說 | 流言非語 | 辨明 |

06 ① 한자 어휘 표기

- ㉠ 장광설(長廣舌: 長 길 장/廣 넓을 광/舌 혀 설) 길고도 세차게 잘하는 말솜씨.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 [유] 다변(多辯)
- ㉡ 유언비어(流言蜚語: 流 흐를 유/言 말솜 언/蜚 바퀴 비/語 말솜 어)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 뜬소문. [유] 부언유설(浮言流說), 부언낭설(浮言浪說), 가담항설(街談巷說)
- ㉢ 변명(辨明: 辨 분별할 변/明 밝을 명)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 [동음이의어]
 - 변명(辯明: 辯 말솜 변/明 밝을 명) 말로 풀어 밝힘
 - 변명(變名: 變 변할 변/名 이름 명) 이름을 달리 바꿈. 또는 그렇게 바꾼 이름.

- 說: 말솜 설/달랠 세/기빠할 열/벗을 탈
- 非: 아닐 비/비방할 비
- 辯: 말솜 변/두루 미칠 편

7.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老主人의 腸壁에
無時로 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7년 6월 17일 지방직 9급

2017. 06. 1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사리다가
바깥 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山中에 冊曆도 없이
三冬이 하이알다.

- 정지용, 「忍冬茶」

- ① 산중의 고적한 공간이 배경이다.
- ② 시각적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 ③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상을 준다.
- ④ ‘잠착하다’는 여러모로 고려하다’의 의미다.

07 ④ 현대시의 분석

④ ‘잠착하다’는 ‘참착하다’의 원말로서, ‘한 가지 일에만 정신과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의 뜻이다.

① 5연의 ‘산중(山中)에 책력(冊曆)도 없이’라는 표현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추운 겨울 산중에서 홀로 인동차를 마시며 겨울을 견디고 있는 노주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② 이 시는 자작나무의 붉은 불과 추위 속에서 돌아난 파릇한 무순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방 안의 모습과 눈바람이 불고 있는 추운 겨울의 바깥 풍경이 대조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③ 이 시는 정지용의 동양 고전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산중에 책력이 없다는 것은 시간에 쫓기어 살지 않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사는 자세를 표현한 것이며 삼동이 하이알다는 것은 겨울 세 달이 눈으로 하얗다는 시각적 표현과 함께 시 전체를 한 폭의 동양화와 같은 인상을 준다. ‘산중에 책력도 없이’ ‘인동차’를 마시며 살아가는 ‘노주인’인 작중 인물은 바로 시인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

※출전: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1. 해제: 이 작품은 추운 겨울 산중에서 홀로 인동차를 마시며 겨울을 견디고 있는 노주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삼동(三冬)’이라는 추운 겨울을 시간적 배경, 산중의 방 안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주인이 인동차를 마시는 모습은 바깥의 풍설과 삼동의 차가운 이미지와 대조를 이루어 도로 피어나는 자작나무의 불꽃과 파릇하게 돌아난 무순처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연함을 느끼게 해 준다. ‘인동(忍冬)’은 한자 그대로 겨울을 이겨낸다는 뜻이다.

2. 핵심정리

- 1) 갈래 : 서정시
- 2) 성격 : 동양적, 관조적, 은일적, 도교적, 시각적
- 3) 어조 : 고요하고 적막한 어조
- 4) 주제 : 산중의 고요한 정경, 현실을 극복하고 건디는 인내
- 5) 특징 :

① 동양적 세계를 보여 주는 시로 각 연들은 동양 특유의 정신적 여백미, 간결성, 절제미가 담긴 동양적 은일 세계를 보여 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서구의 이미지즘과 동양적인 정신의 깊이가 잘 나타남.

② 각 연들은 단절된 장면(정신의 여백미, 동양적 은일의 세계)을 제시→ 전체적 장면 : 고요하고 적막한 산중의 겨울 정경

③ 정지용이 추구했던 동양적 세계를 잘 보여주는 시(서구의 이미지즘과 동양의 전통이 결합됨)

④ 감정을 절제하여 대상을 객관적으로 표현함.

⑤ 주로 시각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였으며, 색채의 대비가 돋보임.

⑥ 풍경을 회화적,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대상을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3. 이 시에 나타난 대조적 이미지

이 시는 자작나무의 붉은 불과 추위 속에서 돌아난 파릇한 무순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방 안의 모습과 눈바람이 불고 있는 추운 겨울의 바깥 풍경이 대조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8. “숙희야,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의 문장을 다음 규칙에 따라 옳게 표시한 것은?

우리말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등이 있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경우 높임은 +로, 높임이 아닌 것은 -로 표시하고 상대 높임의 경우 반말체를 -로, 해요체를 +로 표시한다.

- ① [주체+], [객체-], [상대-]
- ② [주체-], [객체+], [상대+]
- ③ [주체+], [객체-], [상대+]
- ④ [주체-], [객체+], [상대-]

08 ④ 높임 표현

제시 문장에서 주체는 ‘나(화자)’로서 주체 높임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주체-], 객체는 ‘선생님’이며, ‘께서’와 서술어 ‘드리다’를 사용하였으므로 [객체+], 상대는 ‘숙희’이며, 종결어미 ‘-다’를 사용한 해체(반말체)이므로 [상대-]이다.

9. ‘시’에 대한 견해 중에서 밑줄 친 칸트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은?

미적인 것이란 내재적이고 선형적인 예술 작품의 특성을 밝히는 데서 더 나아가 삶의 풍부하고 생동적인 양상과 가치, 목표를 예술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다. 미(美)는 어떤 맥락으로부터도 자율적이기도 하지만 타율적이다. 미에 대한 자율적 견해를 지닌 칸트도 일견 타당하지만, 미를 도덕이나 목적론과 연관시킨 톨스토이나 마르크스도 타당하다. 우리가 길을 지나다 이름 모를 곡을 듣고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처럼 순수미의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곡이 독재자를 열렬히 지지하기 위한 선전곡이었음을 안 다음부터 그 곡을 혐오하듯 미(美) 또한 사회 경제적,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 ① 시는 정제된 시어와 운율을 통하여 감상해야 한다.
- ② 시는 사회의 모순을 고발할 수 있고, 개혁의 전망도 제시할 수 있다.
- ③ 시를 읽으면 시인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 ④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 상황을 알아야 한다.

09 ① 관점의 이해

‘칸트’의 견해는 ‘미에 대한 자율적 견해’ 즉 문학 작품은 문학 외적인 측면으로 설명되는 것을 거부하는 순수한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7년 6월 17일 지방직 9급

2017. 06. 1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다. 이는 문학의 존재론적 관점으로서, 시어나 비유, 상징, 구조 등 내적 요소에 주목하는 ‘내재적 접근방법(내재적 관점)’이라고도 한다. ㉠이 내재적 관점에 해당한다.

10. 밑줄 친 말의 뜻이 옳지 않은 것은?

때는 한창 바쁠 추수 때이다. 농군치고 송이 ㉠파적 나을 높은 생겨나도 않았으리라. 하나 그는 꼭 해야만 할 일이 없었다.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저 그뿐. 그러함에는 먹을 것이 더러 있느냐면 있기는커녕 부쳐 먹을 농토조차 없는, 계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방은 있대야 남의 결방이요 잠은 ㉡새우잠이요. 하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한 친구가 찾아와서 벼를 털 텐데 일 좀 와 해달라는 걸 마다하였다. 몇 푼 바람에 그까짓 걸 누가 하느냐보다는 송이가 졸았다. 왜냐면 이 땅 삼천리강산에 늘어 놓인 곡식이 말짱 뉘 것이람. 먼저 먹는 놈이 임자 아니냐. 먹다 걸릴 만치 그토록 양식을 쌓아 두고 일이 다 무슨 ㉢난장 맛을 일이람. 걸리지 않도록 먹을 궁리나 할 게지. 하기는 그도 한 세 번이나 걸려서 구메밥으로 ㉣사관을 틀었다마는 결국 제 밥상 위에 올라앉은 제 몫도 자칫하면 먹다 걸리긴 매일반…….

— 김유정, 『만무방』 중에서 —

- ① ㉠: 심심풀이
- ② ㉡: 안잠
- ③ ㉢: 몰매
- ④ ㉣: 양쪽 팔꿈치와 무릎 관절

10 ② 어휘의 의미

- ① 파적(破寂) 심심함을 잊고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함. [같은 말] 심심풀이. ‘송이 파적’은 ‘송이(松耳)’와 ‘파적(破寂)’이 합쳐진 말로 심심풀이로 송이버섯을 따먹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새우잠’은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 주로 모로 누워 불편하게 자는 잠을 의미한다.
‘안잠[안짬]’은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일. 또는 그런 여자. ‘안잠자기’라고도 한다.
- ③ 난장(亂杖)
- ㉠ 고려·조선 시대에, 신체의 부위를 가리지 아니하고 마구 매로 치던 고문. 영조 46년(1770)에 없었다. [비슷한 말] 난장형.
- ㉡ [같은 말] 몰매(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덤벼어 때리는 매).
- ④ 사관(四關)
- ㉠ 양팔의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 양다리의 대퇴 관절과 무릎 관절을 이르는 말. ㉡ 양쪽의 팔꿈치와 무릎 관절을 통틀어 이르는 말.

11. 다음 시조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내히 죠타 하고 농 슬흔 일 하지 말며
농이 혼다 하고 義아니면 좇지 말니
우리는 天性을 직히여 삼긴 대로 흐리라



- ① 率性
- ② 善交
- ③ 遵法
- ④ 篤學

11 ① 고시조의 주제

- ① 솔성(率性: 率 거느릴 솔/性 성품 성) ㉠ 타고난 성질. ㉡ 천성을 좇음.
- ② 선교(善交: 善 착할 선/交 사귄 교) 잘 사귀
- ③ 준법(遵法: 遵 좇을 준/法 법 법) 법률이나 규칙을 좇아 지킴.
- ④ 독학(篤學: 篤 도타울 독/學 배울 학) 학문에 충실함.

※출전: 변계량의 시조

- 1. 핵심 정리
 - 1) 성격 : 교훈가
 - 2) 체재 : 의(義)
 - 3) 주제 : 의(義)에 따라 천성 대로 살려는 의지
- 2. 전문 풀이
내가 하기 좋다 하여 남한테 싫은 일을 하지 말 것이요,
또 남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거든 따라 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타고난 성품을 따라서 저마다 생긴 그대로 지내리라.

12. 밑줄 친 말이 표준어인 것은?

- ① 그 사람은 허구헌 날 팔자 한탄만 한다.
- ② 사업에 실패했던 원인을 이제야 깨닫하게 되었다.
- ③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갖가지 양념을 뒤어내고 있었다.
- ④ 큰 죄를 짓고도 그는 뉘연히 대중 앞에 나섰다.

12 ② 표준어 규정

- ① 허구헌 → 허구한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의 형용사는 ‘허구하다’이다 따라서 ‘허구한’이 올바른 표현이다.
- ② 깨닫하다: 오랫동안 생각해 내지 못하던 일 따위를 어떠한 실마리로 말미암아 깨닫거나 분명히 알다.
- ③ 뒤어내고 → 뒤져내고
‘살살이 뒤져서 들춰내거나 찾아내다’의 동사는 ‘뒤져내다’이다. ‘뒤어내다’는 바르지 않다.
- ④ 뉘연히 → 버젓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조심하거나 굽히는 데가 없이’의 뜻을 지닌 부사는 ‘버젓이’이다. ‘뉘연히’는 바르지 않다.

13. 밑줄 친 말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지조란 것은 순일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지조가 교양인의 ㉡위위(威儀)를 위하여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국민의 교화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크며, 따라서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먼저 그 지조의 ㉢강도(強

2017. 06. 1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度)를 살피려 한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명리만을 위하여 그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일조(日照)에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지조 없는 지도자의 무절제와 배신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였는가.

- 조지훈, 『지조론』 중에서 -

- ① ㉠ ② ㉡
③ ㉢ ④ ㉣

13 ④ 한자 어휘

- ① ㉠ 확집(確執: 確 굳을 확/執 잡을 집) 자기의 의견을 굳이 고집하여 양보하지 아니함
② ㉡ 위의(威儀: 威 위엄 위/儀 거동 의)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 ㉢예법에 맞는 몸가짐.
[동음이의어]
• 위의(危疑: 危 위태할 위/疑 의심할 의)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의심스러움.
③ ㉢ 강도(強度: 強 강할 강/度 법도 도) 센 정도.
④ ㉣ 일조(日照) → 일조(一朝)
• 일조(日照: 日 날 일/照 비칠 조) 햇볕이 내리쬐. '별 쬐'으로 순화.
• 일조(一朝: 一 한 일/朝 아침 조) 주로 '일조에' 꼴로 쓰여, 하루아침, 갑작스러운 정도의 짧은 시간.

14. 밑줄 친 말의 품사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개나리꽃이 ㉠흐드러지게 핀 교정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은, 그때 느꼈던 ㉢설레는 행복감은 물론, 대기 중에 ㉣충만한 봄의 기운, 친구들과의 악의 ㉤없는 농지거리, 별들의 잉잉거림까지 현장에 있는 것과 다름없이 느끼게 해 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4 ② 품사의 구분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때는 현재진행형 종결어미 '-는다/-니다'와의 결합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결합이 가능하면 동사, 결합이 불가능하면 형용사이다.

- ㉠ 흐드러지다: 형용사. ㉠매우 탐스럽거나 한창 성하다. ㉢매우 흐뭇하거나 푸지다.
개나리꽃이 흐드러진다(×) → 형용사
㉡ 찍다: 동사
사진을 찍는다(○) → 동사
㉢ 설레다: 동사
(마음이) 행복감으로 설렌다(○) → 동사
㉤ 충만하다: 형용사 한껏 차서 가득하다.
봄의 기운이 충만하다(×) → 형용사
㉣ 없다: 형용사
악의(가) 없는다(×) → 형용사

15. 밑줄 친 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당초에는 불완전하며, 다만 이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소수 특정 부분의 성공적인 결과를 약속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정착은 연구의 정밀화, 집중화 등을 통하여 자기 지식을 확장해 가며 차츰 폭 넓은 이론 체계를 구축한다.

이처럼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을 쿤은 '정상 과학'이라고 부른다. 기초적인 전제가 확립되었으므로 과학자들은 이 시기에 상당히 심오한 문제의 작은 영역들에 집중함으로써, 그럴지 않았더라면 상상조차 못했을 자연의 어느 부분을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된다. 그에 따라 각종 실험 장치들도 정밀해지고 다양해지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특정 기법과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연구는 이제 혼란으로서의 다양성이 아니라, 이론과 자연 현상을 일치시켜 가는 지식의 확장으로서의 다양성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정상 과학은 완성된 과학이 아니다. 과학적 사고방식과 관습, 기법 등이 하나의 기반으로 통일돼 있다는 것일 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수하다. 패러다임이란 과학자들 사이의 세계관의 통일이 지 세계에 대한 해석의 끝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어떤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 부분들은 정립돼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의 연구는 근본적인 새로움을 쫓아가지는 않으며, 다만 연구의 세부 내용이 좀 더 깊어지거나 넓어질 뿐이다. 이러한 시기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은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연구가 고작 예측된 결과를 쫓아갈 뿐이고, 예측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라고 규정되는 상태에서 과학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쿤은 이 물음에 대하여 '수수께끼 풀이'라는 대답을 준비한다. 어떤 현상의 결과가 충분히 예측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예측이 달성되는 세세한 과정은 대개 의문 속에 있게 마련이다. 자연 현상의 전 과정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론으로서의 예측 결과와 실제의 현상을 일치시켜 보기 위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기기적, 개념적, 수학적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수수께끼 풀이이다.

- ① 예측된 결과만을 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이 낮아진다.
② 이 시기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처음에는 불완전하나 후속 연구를 통해 세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과학으로 발전된다.
③ 과학적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이론의 핵심 부분들이 정립되어 있다.
④ 여러 가지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하여 이론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진다.

15 ③ 내용 파악하기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 부분들은 정립돼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이다.

- ① 4문단과 5문단을 보면 '예측된 결과를 쫓아갈 뿐이고, 예측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라고 규정되는 상태'에서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쿤은 이 물음에 대하여 '수수께끼 풀이'라고 말한다. 과학자들의

2017. 06. 1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열정과 헌신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② 3문단의 내용을 보면, '패러다임이란 과학자들 사이의 세계관의 통일이 지 세계에 대한 해석의 끝은 아닌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세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과학으로 발전'된다는 설명은 바르지 않다.

④ 2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연구는 이제 혼란으로서의 다양성이 아니라, 이론과 자연 현상을 일치시켜 가는 지식의 확장으로서의 다양성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 즉 '일치시켜 가는 지식의 확장으로서의 다양성'이라 했으므로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한다는 설명은 바르지 않다.

16. '잡다'의 유의어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의어	예문
죽이다	㉠
쥐다	㉡
어렵하다	㉢
진압하다	㉣

- ① ㉠: 할아버지는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
② ㉡: 그들은 먹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
③ ㉢: 술집 주인은 손님's 시계를 술값으로 잡았다.
④ ㉣: 산불이 난 지 열 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16 ③ 어휘의 의미 관계

- ③ ㉢의 '잡다'는 '담보로 맡다'는 의미이다. '어렵하다'는 '대강 짐작으로 헤아리다'의 뜻이므로 유의 관계가 아니다.
① ㉠ 짐승을 죽이다.
② ㉡ 손으로 움키고 놓지 않다.
③ ㉢ 담보로 맡다.
④ ㉣ 기세를 누그러뜨리다.

17. 다음 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해안에서 밀물에 의해 해수가 해안선에 제일 높게 들어온 곳과 썰물에 의해 제일 낮게 빠진 곳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간대라고 한다.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기에 열악한 환경 중 한 곳이 바로 이 조간대이다. 이곳의 생물들은 물에 잠겨 있을 때와 공기 중에 노출될 때라는 상반된 환경에 삶을 맞춰야 한다. 또한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의 파괴력도 견뎌내야 한다. 또한 빗물이라도 고이면 민물이라는 환경에도 적응해야 하며, 강한 햇볕으로 바닷물이 증발하고 난 다음에는 염분으로 범벅된 몸을 추슬러야 한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만이 조간대에서 살 수 있다.

조간대는 높이에 따라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뉜다. 바다로부터 가장 높은 곳인 상부는 파도가 강해야만 물이 겨우 닿는 곳이다. 그래서 조간대 상부에 사는 생명체는 뜨거운 태양열을 견뎌내야 한다. 중부는 만조 때에는 물에 잠기지만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곳이다. 그런데 물이 빠져 공기 중에 노출되었다 해도 파도에 의해 어느 정도의 수분은 공급된다. 가장 아래에 위치한

하부는 간조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물에 잠겨 있다. 땅위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에선 다소 안정적이긴 해도 파도의 파괴력을 이겨내기 위해 강한 부착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생존이 쉽지 않은 곳이다.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한다. 조간대를 찾았을 때 총알고둥류와 따개비들을 발견했다면 그곳이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인 것이다. 이들은 상당 시간 물 밖에 노출되어도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패각과 덮개 판을 꼭 닫은 채 물이 밀려올 때까지 버틸 수 있다.

- ① 조간대에서 총알고둥류가 사는 곳은 어느 지점인가?
② 조간대의 중부에 사는 생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③ 조간대에서 높이에 따라 생물의 종이 수직으로 분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④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적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17 ② 내용 파악하기

2문단의 내용을 보면 '중부는 만조 때에는 물에 잠기지만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곳이다'라는 지점 설명만 있을 뿐 어떠한 생물이 사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 ① 3문단, '총알고둥류와 따개비들을 발견했다면 그곳이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인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알 수 있다.
③ 3문단의 내용을 보면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한다.'라고 하였다. 즉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하는 것이다.
④ 1문단의 '이곳의 생물들은~조간대에서 살 수 있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18. 다음의 개요를 기초로 하여 글을 쓸 때, 주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론 : 최근의 수출 실적 부진 현상

본론 : 수출 경쟁력의 실태 분석

1. 가격 경쟁력 요인

- ㄱ. 제고 원가 상승
- ㄴ. 품질 개선 부족
- ㄷ. 환율 불안정

2. 비가격 경쟁력 요인

- ㄱ. 기업의 연구 개발 소홀
- ㄴ. 품질 개선 부족
- ㄷ. 판매 후 서비스 부족
- ㄹ. 납기의 지연

결론 :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 제시

- ①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7. 06. 1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② 기업이 연구 개발비 투자를 늘리고 품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③ 내수 시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 ④ 정부가 수출 분야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18 ① 개요표의 주제문

① 서론에서 '현재 우리의 수출실적이 부진 현상'을 제기하고, 본문에서 수출 경쟁력의 실태를 가격, 비가격 경쟁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수출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가격, 비가격 경쟁력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가격, 비가격 요인)을 분석한 후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①이 주제문으로 적절하다.

②는 본론의 '2. 비가격 경쟁력 요인'의 일부에 대한 해결방안이다.

19.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쪽에서 물건 하나를 맡아 주었으면 해요. 그건 ㉡우리 할머니의 유품이에요. ㉢저는 할머니의 유지에 따라 당신에게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을 느껴요. ㉣할머니께서는 ㉤본인의 생각을 저에게 누차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이죠. 부디 ㉥당신이 할머니가 품었던 호의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할머니는 결코 말씀이 많으신 분이 아니었지요. ㉦당신께서 생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심정이 거기에 절실히 아로새겨져 있을 거예요.

- ① ㉠과 ㉢은 1인칭 대명사이다.
- ② ㉡은 ㉢과 ㉤을 아우르는 말이다.
- ③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 ④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19 ③ 대명사의 지시 대상

③ ㉦의 '당신'은 앞 문장에서 제시된 ㉢의 '할머니'를 아주 높여 이르는 3인칭 대명사이다.

① ㉠의 '그쪽'은 상대(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이고, ㉢의 '저'는 말하는 이가 윗사람이나 그다지 가깝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이다.

② ㉡의 '우리'에는 ㉢의 '할머니'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의 '본인'은 바로 앞에 나온 ㉢의 '할머니'를 지칭하는 말이고, ㉤의 '당신'은 대화의 상대를 의미한다.

20. 다음 글의 논증 구조를 옳게 파악한 것은?

㉠동물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동물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 못지않은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즉, 동물들도 여러 가지 소리를 내거나 몸짓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감정과 기분을 나타낼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의사를 교환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겉모습의 유사성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물들이 사용하는 소리는 단지 배고픔이나 고통 같은 생물학적인 조건에 대한 반응이거나,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본능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동물들이 내는 소리가 때때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해서 그것을 대화나 토론이나 회의와 같은 언어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① ㉠은 논증의 결론으로 주제문이다.
- ② ㉡은 ㉠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한 것이다.
- ③ ㉢은 ㉠, ㉡을 부정하고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 것이다.
- ④ ㉤은 ㉢, ㉤에 대한 근거이다.

20 ③ 글의 짜임새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동물들도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의사를 교환하고 있는 듯하다'는 ㉠과 ㉡의 내용을 부정하고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 글은 동물의 소리는 본능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간의 말과 다르다는 점을 밝힌 논증이다.

② '즉'은 앞 내용을 다시 말한다는 의미로, ㉡은 ㉠을 구체적으로 부연하는 역할을 한다.

④ '따라서'는 앞에서 말한 일이 뒤에서 말할 일의 원인, 이유,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이다. 그러므로 ㉢, ㉤이 근거이고, ㉤은 이 글의 주제문이다.